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보성 조현곤 선정

**전국 79번째·전남 10번째···국내 최초 대엽종 차나무 증식 성공**

**전남 첫 덴차 라인 구축 말차 기반 완성···미국 수출 문의 증가**

전남에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 또 배출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능촌진흥청이 발 표한 올해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결과 특작 부문에서 보성군 조현곤 명인이 이름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식량과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등 5개 분야에서 영농 경력 20년 이상·동물 품목 15년 이상을 갖춘 농업인 가운데, 지역 농업 기술 발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이들을 선별하는 최고 권위의 명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에서 79명이 선정됐으며, 올해 조명인의 선정을 포함해 전남은 누적 10명의 명인을 배출하게 됐다.

올해 특작 부문 명인으로 선정된 조현곤 명인은 국내 최초로 대엽종 차나무 증식에 성공하며 새로운 품종 개발을 이끌어 왔다.

조현곤은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한 찻잎만을 사용해 100% 유기농 녹차·가루 녹차·블렌딩치를 생산해왔다.

보성군의 녹차산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선정위원회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인구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장은 "명인의 축적된 전문성과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해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기술적 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농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현장과의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명인은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한 찻잎만을 사용해 100% 유기농 녹차·가루 녹차·블렌딩치를 생산해왔다.

보성군의 녹차산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선정위원회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인구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장은 "명인의 축적된 전문성과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해 청년농업인들이 겪는 기술적 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농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현장과의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시, 국가데이터처 지역통계 우수사례 '우수기관'

이용현황 등 맞춤 분석 기반  
‘광주다음 통합돌봄’ 운영

광주시는 최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처 주관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광주다음 통합돌봄: 동별 중점관리군 및 의무방문 대상 선정’ 분석사례로 우수기관에 올랐다. 이는 호남지방통계청 지역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전국 수상 성과다.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연구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역통계를 활용한 정책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시는 노인장기요양재기여 등급자, 심한장애, 청장년 1인 가구 수급자 등 의무방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별 이용 현황, 유형별 이용격자 등을 정밀하게 분석, 이를 정책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 ‘광



광주시는 최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처 주관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다음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발전한 사례로 인정 받았으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역통계 기반 분석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정밀도



광주관광공사는 2025 비짓광주 SNS 기자단 해단식을 갖고, 올 한 해 광주 관광 홍보의 새로운 장을 연 기자단의 성과를 공유했다.

했다”며 “특히 외국인 기자단 운영으로 글로벌 홍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5 광주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 2025 비짓광주 SNS 기자단, 1년 여정 마무리 광주관광공사, 외국인 기자단 첫 운영···SNS 어워즈 2관왕

광주관광공사(사장 김진강)는 2025 비짓광주 SNS 기자단 해단식을 갖고, 올 한 해 광주 관광 홍보의 새로운 장을 연 기자단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비짓광주 SNS 기자단은 전년 대비 증원된 12명 규모로 운영됐으며, 특히 처음으로 외국인 기자를 선발해 광주의 매력을 다양한 시각과 언어로 세계에 전파했다.

베트남, 일본 등 외국인 기자단이 제작한 현지어 콘텐츠는 해외 관광객 유치의 초석으로 광주 관광의 글로벌 브랜딩에 기여했다.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기자단은 광주 곳곳의 축제, 숨은 명소, 문화행

사 현장을 직접 밟아 뛰며 취재했다. 이들이 제작한 솟폼 영상과 블로그 콘텐츠는 비짓광주 SNS 채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트렌디한 편집과 감각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무장한 콘텐츠는 MZ세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며, 광주를 ‘가보고 싶은 도시’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런 노력을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됐다. 비짓광주 SNS는 올해 2개의 SNS 어워즈에서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 홍보 채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기자단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비짓광주는 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채널로 성장

했다”며 “특히 외국인 기자단 운영으로 글로벌 홍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마무리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생생한 콘텐츠 기반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제시판

**일정**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드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

매 등 상담. 국면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기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견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치매에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

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온세 (음력 10월 16일)

48년생 자녀일 크게 벌이지 마라  
60년생 만족도 만한 결과로 일이 마무리 된다  
72년생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가 됐다  
94년생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96년생 일 서두르면 눈알도 보이지 않는다

51년생 막혔던 금전용통이 시원하게 풀리다  
63년생 거래 잘 풀려나가니 크게 성공한다  
75년생 격식에 앉아야 제 빛을 발휘한다  
87년생 손윗사람에게 시비하지 마라  
99년생 연인과 함께 하면 관계를 불러온다

54년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66년생 배우자의 이성에게 한눈팔지 마라  
78년생 상대를 알아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90년생 지인부탁으로 일을 크게 벌이지 마라

57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좋은 일 생길 것

69년생 이익이 따를 수 있는 날

81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93년생 중심이 없고 갈팡질팡하는 날

49년생 금전을 융통해도 일을 이루지 못한다  
61년생 순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티깝다  
73년생 모든 것이 시와 때가 있는 법  
85년생 새 출은 새 부띠에 넣어야 한다  
97년생 자격시험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다

52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 기다리고 있다  
64년생 손윗사람 탓하기 전에 다시 돌아보자  
76년생 거래에 지난치 신경은 걱정을 해진다  
88년생 지인이 전업을 권하면 거절

55년생 금전 융통이 막히는 날

67년생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하루

79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무의미

91년생 연인 좋거나 나쁘지 않고 원만하다

58년생 자녀에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70년생 마음이 잘 맞는 지인과 상의하라

82년생 아무 걱정이 없는 무난한 하루

94년생 서둘러 되는 일은 없다

50년생 자녀 진로 신경  
62년생 맘에 쉽게 이뤄지니 큰 이익 있다  
74년생 오늘 치량 탐색을 삼기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반복하니 금전과 명예가 늘어난다  
98년생 원하는 학교에 학업할 수 있다

53년생 조그마한 인연이 많은 날  
65년생 간사한 꾀로 귀하를 속이기 한다  
77년생 많고 적고 같은 지름을 모아야 할 때  
89년생 직장에 대한 지금의 상황에 만족

56년생 금전 투자는 금물이다

68년생 직장내 다 끝낸 일이 다시 불거지겠다

80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된다

92년생 근본적으로 이성과 결부돼 있음 알라

59년생 추진하기 앞서 마음 안정 찾아야 한다

71년생 금전운이 길하니 곧 나기겠다

83년생 소문없이 나타나니 맞이할 채비 다하라

95년생 가까운 선후를 만나보자